“5년 내 年출가자 200명 회복시키겠다”

조계종 교육원장 혜일 스님 1월 17일 신년기자회견

출가자 감소 대응 제1과제 제시
종립학교, 軍서 현장 출가 상담
기본교육기관 조정 2년간 유예
“출가자 증대로 기관 조정 해결”
MZ세대 전법 인재 발굴 · 활용
“출가 장려가 곧 포교전법 활동”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조계종 제9대 교육원은 모든 역량을 동원해 출가자 수를 늘리는 데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3년 후에는 연간 출가자 150명, 5년 후에는 200명 선을 회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계종 제9대 교육원장 혜일 스님이 “5년 안에서 연간 출가자 200명 회복”을 목표로 걸고 출가 진흥 정책을 전개할 것을 천명했다.

조계종 교육원은 1월 1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교육원장 혜일 스님 신년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신년기자회견은 혜일 스님이 제9대 교육원장 취임 후 가진 첫 기자회견으로 향후 5년간의 승가교육 종책의 로드맵을 확인하는 자리여서 주목을 받았다.

“승가교육이 종단의 백년대계”라고 천명한 혜일 스님은 “선지식들의 가르침을 지표로 삼아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종단의 백년을 책임질 인재를 담아내는 종책을 펼칠 것”을 약속했다.

혜일 스님은 제1과제로 ‘출가자 감소 위기에 대한 대응’을 제시했다. 스님은 교육원에 취합된 각종 자료를 통해 급격한 출가자 수 감소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규제 중심의 출가 관련 규정을 재정비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포교원과 협업해 종립학교, 대학교 불교동아리, 군부대 등에서 현장 출가상담을 진행하며, 출가지도법사(사찰 교무국장) 역할도 강화할 계획이다.

혜일 스님은 “미래세대가 있는 장소를 찾아가 직접 소통하며 고민을 나누겠다. 명상과 상담을 중심으로 젊은 스님과 청장년 세대의 만남의 장을 일상화하도록 하겠다”면서 “출가가 새로운 인생의 선택이 될 수 있음을 널리 알리고 사회에 꼭 필요한 일임을 알려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계종 교육원장 혜일 스님이 1월 17일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향후 종책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 같은 정책을 통해 지난해 61명에 그쳤던 출가자 수를 향후 3년 내로 150명 선, 5년 내로 200명 선까지 회복시키겠다는 게 혜일 스님의 계획이다.

혜일 스님은 학인 감소로 인한 승가기본교육기관 조정 문제 역시 출가자 증대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감소로 기관을 통폐합하기보다는 출가자를 늘려서 기본교육기관을 활성화시키겠다는 발상의 전환이다.

이에 대해 혜일 스님은 “종단을 운영하고 교육기관들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연간 200명이 출가해야 한다. 그래서 5년 동안의 목표를 200명으로 잡았다”면서 “제9대 교육원에서는 승가기본교육기관 조정을 하지 않겠다. 우선 2년 동안 유예하고 출가자를 늘려 해당 현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요 과제로 제시한 ‘전법, 교육 활동 인재 발굴과 지원’도 MZ세대 전법, 출가 진흥 종책과 맞닿는다. 교육원에 따르면 △연수교육에 ‘출가’에 대한 관심 유도할 수 있는 교육 반영 △전국 사찰 법회시 ‘출가’ 주제 법문 독려 △출가상담사 · 현장 활동 스님 발굴 및 지원 강화 △행자 생활 기간 중 애로사항 상담 등의 종책들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연수교육에는 출가진흥팀 강사진을 구성해 발심 출가 연수 교육 시행하며, 사찰지경영지도자 과정에서 출가 장려 종책기조를 공유키로 했다.

종단 및 교구본사, 말사로 출가 관련 법문 활성화를 독려하고, 법문을 위한 문안들도 제작해 제공된다. 또한 행자 하산률 감소를 위한 상담 매뉴얼도 개발 · 배포할 예정이다.

“출가 장려가 곧 포교 전법 활동”이라고 강조한 혜일 스님은 “비구 · 비구니계를 받은 모든 스님들이 전법포교 인재”라면서 “이들 스님들이 현장에서 포교하며 출가를 장려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혜일 스님은 종단 · 불교관 확립을 위한 교육과 전법 실천 중심 교육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혜일 스님은 “시대와 소통하는 불교관 확립은 매우 중요하다. 전통적 교과목과 더불어 인문학 강의에 대한 교과목을 적극 도입토록 할 것”이라면서 “불교 기본 교리에 대한 확신과 출가자로서의 자부심을 높일 수 있는 교육에 대한 교과목 개편을 검토해 기초 · 기본교육과정의 예비 스님들이 불교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시대의 흐름에 부합하기 위한 성과 있는 교육은 유지하고, 승가 정체성과 전법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많아지도록 하겠다”면서 “승가결사체, 인증교육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그 효과를 면밀히 점검하고 전체 교육의 통일성에 부합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계종 “해인사 주지 사직 보류…조사 진행”

총무원 1월 18일 대변인 명의 입장문 발표

주지 범계 논란에 사과 표명
원타 스님 주지 임명 ‘불투명’
현응 · 성공 스님 산문출송돼

조계종이 최근 불거진 해인사 주지 범계 논란에 대해 사과 입장을 표명하고, 논란 당사자인 현응 스님에 대해 징계 조사를 진행키로 했다.

조계종 총무원은 1월 18일 대변인 성화 스님(기획실장)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제12교구본사 해인총림 해인사 주지의 범계 등 불미스러운 논란에 대해 국민과 사부대중 여러분께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사과했다.

조계종 총무원은 “해인사 현 주지 스님이 지난 1월 12일 자로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호법부의 등원 통지 및 조사 상황에 따라 사직 처리는 보류했다”면서 “종단은 종헌 · 종법 적용 판단 및 종단 조치를 위해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었다. 호법부가 지난 1월 12일 관련 당사자에 등원을 통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고지했다.

이와 함께 조계종 총무원은 호법부 조사와 별도로 교역직 종무원의 징계를 다루는 중앙징계위원회를 소집해 절차를 진행 중이며, 관련 조사와 징계도 검토할 계획이다.

조계종 총무원은 “조사 과정을 통해 범계 사항이 확인되면 종단 내 법규와 절차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며 “인사권자인 총무원장 스님께서는 이러한 절차 이후 종헌 종법에 의거해 후임 주지와 관련한 사항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해인총림 해인사는 1월 16일 경내 관음전에서 제1차(임인년 동안거 해제) 임회 회의를 열고 유나 원타 스님을 주지 후보로 추천했다.

하지만, 현응 스님의 사직 처리가 보류되고 호법부 조사 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해인총림 임회에서 주지 후보로 추천된 원타 스님의 임명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조계종 기획실 관계자는 “현 주지 스님의 사직이 보류됐기 때문에 해인총림 임회를 통해 추천된 원타 스님의 주지 임명은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이날 임회에서 현재 범계 논란이 불거진 현응 스님과 비상대책위원회를 통해 총림과 방장 스님을 폄훼한 성공 스님에게 ‘산문출송(山門黜送, 절에서 내쫓음)’을 결의했다.

또한 해인총림 사부대중은 1월 19일 발표한 참회문을 통해 “최근 前주지 현응 스님과 관련해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나고, 그와 더불어 해인사의 청정 수행 도량에서 승풍이 실추되는 사태가 벌어졌다”면서 “해인총림 사부대중은 모든 종도와 국민 앞에 진심으로 두 손 모아 합장하며 참회문을 올린다”고 참회했다. 이어 “승풍 회복을 위해 동안거 해제일까지 대적광전과 각 수행처에서 참회 기도를 통해 여리박빙(如履薄氷)의 자세로 수행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다짐했다.

신성민 기자 · 성낙두 경남지사장

법화종 “종단 재도약 원년” 선포

종정 스님 신년하례법회서 신임 집행부 임명장 수여도

법화종이 계묘년 새해를 ‘종단 재도약 원년’으로 삼겠다고 선포했다. 특히 종도들의 원력을 토대로 종단 안정을 넘어 미래를 담보할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의지다.

대한불교법화종(총무원장 관효)은 1월 4일 의성군청소년센터 대강당에서 계묘년 종정예하 신년하례법회를 봉행했다.〈사진〉 신년하례는 의성 수도암에서 종정스님과 종단 원로의원 스님들을 중심으로 선대조사 다례재를 봉행한 후, 의성군청소년센터 대강당으로 장소를 옮겨 400여 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됐다.

법회는 전통방식의 삼귀의와 법화종요, 여래수량품자아게 봉독에 이어 통알의식으로 시작됐다. 장소 특성상 부처님을 대신해 불교기를 향해 삼배한 대중은 종정 도선 대종사와 원로원 스님들, 총무원장 관효 스님과 서로를 향해 삼배하며, 새해를 맞이하는 덕담을 나눴다.



종정 도선 대종사는 신년법어로 ‘종종인연 수종종행(種種因緣 修種種行) 득무상법 시방만경(得無上法 十方萬境) 환희포시 화합종단(歡喜布施 和合宗團)’의 가르침을 전했다. 대종사는 “가지가지 인연으로 각각 가진 고행을 닦아 위업묘법을 얻었거든 시방세계 끝까지 환희심으로 베풀고 화합종단을 이룩해 나가자”며 종도들이 본래 면모를 되찾고 수행에 진력하는 가운데 종단 미래를 열어가길 당부했다.

총무원장 관효 스님은 “해가 바뀌면 원력을 새롭게 세워 나아가듯, 우리 종단도 새 원력을 세워 일일신 우일신하지 않으면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퇴보하게 될 것”이라며 “총무원장 취임 일성으로 약속한 종단 변혁과 개혁의 두 수레바퀴는 올해도 중단없이 굴러갈 것으로, 우리 종도들도 더 이상 구습에 안주하는 안일한 생각에서 벗어나 종단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한해를 만들어가자”고 당부했다.

이를 위해 스님은 신년법회에서 제20대 총무원 2기 집행부 인사 단행을 선포하고 “변화와 혁신에 기반한 인사를 통해 젊고 유능한 인재를 등용해 참다운 승가정신 회복에 앞장서는 총무원으로 거듭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로 쉽지 않았던 ‘전국교구 순회 대중공사’도 3월부터 본격화할 계획을 밝혔다. 이어 참석 사부대중은 수도암 반야월 보살이 대표낭독한 발원문을 통해 “새해 금강석과 같은 굳은 신심으로 파사현정을 실현하고 소통과 화합으로 종사에 만세반석을 쌓을 수 있길 바란다”며 새해를 맞아 종단 재도약을 위한 원력을 재차 다짐했다.

신년하례는 소외된 이웃과 함께하는 나눔법석이기도 했다. 이날 법화종은 의성군청에 백미 20kg 150포대를 기탁했다.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齋(재) 의식의 변화 輩(연) 소형
종이연, 종이용선, 대체용
•태워서 환경오염시킴 없이 한 번 구입으로 평생 사용할 수 있는 연
•정교한 조각, 화려한 휘장 금단청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출원번호 30-2022-0052348
출원번호 030-0949904
가볍습니다 4kg
금단청연
적단청연
규격 W45cm x H65cm 가격 ₩150만원
위패나 사진을 올려 놓을 수 있도록 서랍식으로 제작됨
포교당 사용
양손잡이가 부착되어 가볍게 들을 수 있습니다.
손잡이를 들고 배에 부착하여 편하게 받들 수 있습니다.
대형 연
영단의 장엄
40여년의 외 길
사찰 모든행사에 필수적인 의식구
49재 천도재 예수재 영산재 수륙재 등 각종 행사
공단자수 (번)幡
§ 번의 종류
•인로왕번
•아미타번
•삼신번
•오방번
•좌보처
•지장보살
•우보처
•항마진언
•보고번
•영가번
•구병시식
•산신번
•관세음
•용왕번
•시왕번
•칠여래번
•대세지번
•옴마니번
현장영상 • SBS NEWS
오늘(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조계사
이태원 참사 49일째 '추모 위령제'
한국불교전통의식구
주소:서울 중랑구 상봉중앙로 10길 8 풍산쉐르빌 105동 201호
☎010-8441-6814